강진군, 신전면 송천·사초마을 찾아 맞춤형 '희망' 배달

강진군이 지난 17일 신전면 송천마을회관에서 송천·사초마을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116회 희망나눔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희망나눔사업은 복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일상에 꼭 필요한 복지·생활·건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강진군의 대표적인 맞춤형 나눔 시책이다. 이날 행사에는 12개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동참해 다채로운 나눔 활동을 펼쳤다.

현장에서는 흥겨운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발마사지와 네일아트, 커트 및 염색 등 전문 이·미용 봉사가 정성껏 진행됐다. 아울러 보건소 의료진이 참여한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꼼꼼한 건강 돌봄 서비스가 더해져 주민들의 환절기 건강을 살뜰히 챙겼으며, 새마을부녀회의 따뜻한 차와 다과 나눔, 반려화분 만들기 체험 등이 이어져 마을회관 안팎은 온종일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날 서비스를 이용한 송천마을의 한 주민은 "몸도 쑤시고 읍·면 소재지까지 병원이나 미용실을 찾아가기 쉽지 않았는데, 마을회관까지 찾아와 침도 놓아주고 예쁘게 머리 손질과 사진 촬영까지 해주니 명절보다 더 즐겁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모아주신 자원봉사자와 관계기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정성껏 전해드린 서비스들이 고된 일상에 작은 보탬과 활력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은 지난 2013년 첫걸음을 뗀 이후 지금까지 116회에 걸쳐 복지 취약 마을을 순회하며 군민 눈높이에 맞춘 감동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전운재 기자



제116회 희망나눔사업 현장 모습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YD페스티벌·연말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제6회 무안 YD페스티벌 개최를 기념하고 연말정산을 앞둔 기부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 기간 고향사랑e음을 통해 무안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더해 네이버페이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며, 네이버페이는 12월 28일까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지급된다. YD페스티벌이 열리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축제장 내 고향사랑 홍보부스에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 기간 현장 기부에 참여하면 무안 특산품인 재래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무안군은 2027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시니어 의사 채용, 병원 이용 아동 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정류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활용 어르신 영양 돌봄 강화


목포시 여성예비군 대원들이 순천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수산식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영양듬뿍 식사배달사업'에 지역 수산식품을 활용한다.

이번 사업은 '목포돌봄365' 통합돌봄 틈새사업의 하나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수산식품을 식단에 활용해 어르신의 영양 섭취를 돕고 지역 수산식품의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돌봄365'는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및 주거복지 지원 등 5개 분야 43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먹거리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태 기자

이남오 함평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발전 협력 강화

이남오 함평군수는 19일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함평군의 주요 발전사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예산안에 현안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군수는 빛그린산단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친환경 타이어 평가기술 고도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돌머리 해양치유센터 조성, 한우 육종센터 구축, 엑스포공원 진입도로 확장 등 7개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과 광주 삼도~함평 나산 확포장 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요청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과 국도 24호선 나산지구 정비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이남오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삼호읍에 재난대응 거점통합창고 문 열어

영암군은 지난 18일 삼호읍 서호리에서 재난대응 거점통합창고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84㎡ 규모로 조성된 창고는 제설제 등 재난관리자원을 보관하고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서부권 제설작업은 영암읍에서 제설제를 운반해야 해 편도 약 45분이 소요됐으나, 이번 창고 개소로 삼호읍에 제설제를 미리 비축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를 통해 기존 작업 일정 기준 최대 90분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창고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해 폭우·폭염·폭설 등 각종 재난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서부권 제설작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제때 공급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 2027년 '홍도 방문의 해' 추진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2027년을 '홍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홍도와 흑산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 전환에 나선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홍도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해양경관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휴식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흑산도와 인근 섬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5억 원을 투입해 홍보마케팅, 참여 행사, 아웃도어 관광상품 개발, 해설사 양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바다수영과 트레일러닝, 수상레저 등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주민과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자연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체류형 관광으로 홍도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